

“사랑 넘치는 세상 만들기, 아무래도 우리 부부 사명 같아”

“오늘 여기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와 있습니다. 임수빈양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노래를 선사하겠습니다고 합니다.”

소개를 마친 최수중씨가 기타를 든다. 최씨의 반주에 맞춰 임금실 수빈이가 ‘곰 세마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무대가 처음인 아이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가냘팠다. 옆에 서있던 하희라씨가 다정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노래를 거른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역삼동 신한아트홀. ‘최수중과 하희라의 희망 나눔 콘서트’ 리허설이 한창이다. 뜻밖의 사고로 흉한 화상을 입은 어린이 한 자들을 위한 행사다. 얼핏 보기엔 그냥 이쁜 꼬마 아가씨인 수빈이도 전신화상으로 목부터 온몸에 흉터가 있다.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 외출을 꺼리던 아이는 최씨 부부의 도움으로 흉터 성형 수술을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

최근 최씨 부부는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나눔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 부부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나눔의 정신을 퍼뜨리고 실천해 가는 리더를 꿈꾸고 있었다.



7일 오후 서울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최수중·하희라 부부가 어린 화상환자들을 위한 ‘희망 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최씨의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수빈이를 하씨가 거두고 있다.

• **드라마도 끝났는데 두 분 다 여전히 바쁜 것 같다.**
 최수중(이하 최)=“굿네이버스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다녀왔어요. ※최씨는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의 친선대사다. 아프리카엔 처음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정말 답이 없어 보였다. 돌아와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사는 한사랑 마을에 갔다. 도배하고 마루 깔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 애들을 보니 또 얼마나 가슴이 아리리다. 작별 인사하고 나오며 많이 울었다.”

하희라(이하 하)=“지난해부터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다. 선한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다. 여기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 **이렇게 나눔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나.**
 최=“1980년대 중반 사업을 하하던 아버님이 빚만 잔뜩 남긴 채 돌아가셨다. 미국 유학을 접고 그 날 돌아와야 했다. 오니 아무 것도 없었다. 빚쟁이 들만 꽃아다니고, 밖에서 자는 건 기본이었다. 그

러던 어느 날 또 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분이 신문지 한 장을 건네줬다. ‘이거라도 덮으면 따뜻하니 덮고 자라’고 했다. 그분도 노숙자였다. 충격이었다. 저런 여유가 어디서 생겼을까 싶었다. 신도, 부모님도, 많이 원망하던 때였는데 그 분을 보고 있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하게 됐다. 마음 잡고 열심히 돈을 벌 테니 나한테도 저분처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달라고 빌었다.”

그때부터 최씨는 돈을 벌면 교회에서 행원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사주곤 했다고 한다.

하=“저는 결혼 후 최수중씨가 심장병 어린이에 관한 기사를 읽고 도와주자고 해서 흔쾌히 동의한 게 처음이었다. 그 다음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 첫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고 병실에 있을 때, 사인 받으러 온 소아암 환자들의 애절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최씨는 세 번의 유산 끝에 큰 아이를 얻었다. 큰 아이 백일 잔치 때는 당시 소년소녀 가장이라 부르던 아이들 100명을 초대해 같이 음식 먹고 그랬다.”

• **말 그대로 부창부수(夫唱婦隨)다. 특별한 이벤트를 많**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거리로 쫓겨나 잠자던 최씨에 노숙자가 신문 한 장 주며 “이거라도 덮으면 따뜻해”

하씨는 유산 아픔 겪으며 불우한 아이들에 관심 커져 ‘제대로’ 도우려 사회복지 공부 “이제 결혼 기념일에 봉사 이벤트”

이하는 달살커피로도 유명한데 하=“웃음)지난 결혼기념일(11월 20일)엔 100인 이사회 친구들과 연탄배달 봉사를 했다. 세 개씩을 지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렸더니 발뺌에 피멍이 들었다. 마지막 연탄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뿜 뿜 나왔다. 해냈구나, 싶었다. 앞으로 기념일에 그렇게 봉사를 하기로 했다. 봉사 이벤트, 서로에게 그게 가장 의미 있을 것 같다.”

• **자녀들과도 봉사활동을 같이 하나.**
 최=“지금 최민서씨가 초등학교 6학년, 최윤서씨가 5학년이다 ※최씨는 아내를 물론 남편과 자녀에게도 교박교박 존댓말을 한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뜻이란다. 그 동안은 어려서 함께 할 만한 봉사활동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다가 2년 전 화상환자들을 위해 복음성가 음반을 내고 쇼케이스를 할 때 두 사람이 각자 배우던 바이올린과 플루트를 연주했다. 저는 기타치고, 하희라씨는 노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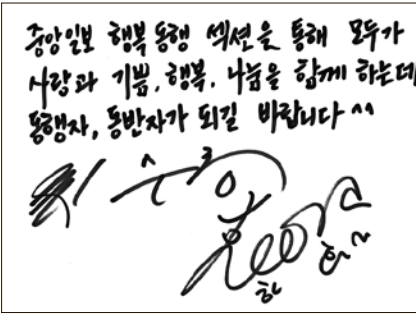
하=“그때 ‘재능기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다. 우리가 그냥 기부금을 냈더라면 음반을 만들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기 어려웠을 거다. 아이들이 그렇게 참여해 작은 도움이 된 걸 무척 보람 있어 했다.”

• **100인 이사회도 스타들의 재능기부인가.**
 최=“요즘엔 많은 대중문화인들이 나눔 활동에 동참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거나,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 수익원을 기부한다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다.”

김정수 기자 newslady@joongang.co.kr

• **방송과 봉사활동, 그리고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텐데.**
 최=“웃으며 말한다. 조금의 절제만 있으면 된다. 저라고 친구들 만나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나.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가족과 일요-정보석-오윤아와 남성진-김지영 부부, 최희진은 즉석에서 『행복동행』 독자를 위한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다.”



김도훈 기자

COVER STORY

강일구의 초록세상

나눔이란 작은 손길로도 돌아오는 희망씩

제14378호 40판

온 가족을 위한 따뜻한 섹션 ‘행복동행’에 초대해요



“엄마, 도대체 이걸 얼마나 더 퍼담아야 해요? 월등어 죽겠어요.” “그냥 썩게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신발이 다 터러워졌잖아.”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숲에서였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 녀석이 실 새 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인 제 직권으로 가입한 용산구 가족봉사단에서 처음으로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날이었습니. 곳곳에 벌목이 폭죽 빠지도록 쌓여있는 낙엽들을 갈퀴로 한 자리에 모은 뒤 다시 커다란 비닐포대에 눌러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낙엽은 월드컵공원으로 보내져 꽃밭의 비료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초보 봉사자인 제게도 쉽지 않았습니. 먼지와 땀 범벅이 된 아이들은 언제 끝나느냐, 다음 번에도 이런 일을 해야 하나며 투덜댄 뿐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여서, 일단 자전거 타기와 햄버거 등의 ‘보상’을 약속하며 달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들 일기장을 보고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마음이 정말 뿌듯해 열심히 했단다”는 겁니다. 오빠라, 꼬꼬만 녀석

들이 남이 읽을까봐 이렇게 포장을 하네. 민정대는 엄마에게 큰 아이가 억울한 듯 대꾸합니다. “피이, 아까는 정말 힘드니까 짜증이 났지.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들긴 들었단구요.”

빙고! 아이들과 함께 할 만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어렵사리 찾아낸 보람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방향만 좀 잘 잡아주면 금세 이렇게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행복동행’ 섹션 에디터를 맡기로 했을 때면 먼저 떠오른 건 솔직히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끔찍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세상에, 아이들에게도 맘 놓고 읽히면서 함께 따뜻함을 느끼고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섹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업사회공헌 트렌드나 사회적 기업 등, 전문가들이 눈여겨볼 만한 내용도 읽고 재밌게 풀어써 말입니다.

특히 티면면의 글은 최대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 어른들이 읽고 느낄 게 더 많을 겁니다. 이번 호의 해남 땅파름을 아이들 기사가 그렇습니. 부모의 무관심과 폭력에 상처 받았거나 장애를 가진 가난한 아이들이지만, 몇 백

원의 간식비와 교통비를 차곡차곡 모아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또 환경엔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온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담겠습니다. 아이들은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생 봉사자들이 나무를 심는 현장에 행복동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따라해볼 수 있는 나눔 방법들을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4면의 ‘나눔 열’ 기사를 읽고 싶게도 그 열들을 다룬받아 실천해보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수록 행복한, 실천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동행 에디터 newslady@joongang.co.kr

‘김정수의 해피특특’: 중앙일보 생활부·문화부·사회부 등에서 가족문제와 보건복지 분야를 주로 취재해 왔습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육아연구와 생명공공체 운동과 결사친고 있는 경원대 세살마을을 연구실의 연구교수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는

나눔·봉사 앞장 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모임

최수중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뜻으로 지난해 10월 창립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봉사 단체다. 연기자 이순재·신영균씨가 고문, 영화배우 이덕화씨가 명예회장이자. 현재까지 이수 박상민과 SS501의 김형준, 탤런트 남승마·일요-정보석·오윤아와 남성진-김지영 부부, 최희진은 즉석에서 『행복동행』 독자를 위한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다.”

이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고 저소득층가정에 직접 연탄을 나르는 등의 직접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티즌 오프라주’를 실천하고 있다.

소지는 행복동행 기자 tm0819@hanmail.net

다. 지난 3월 문화재단과 ‘한 문화재단 지킴이’ 협약을 맺고 고공 무인안내시스템에 이사회 소속 스타들의 목소리를 기부한 게 대표적인 예다. 또 기업사회공헌활동(CSR)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장서, 5월에는 ‘한국GM 한마음재단’과 함께 ‘2011 사랑의 차량기증 사업’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34곳에 차량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 스타들의 봉사현장에는 노란조끼를 입은 ‘봉쥬(봉사는 즐거워)’ 회원들이 항상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유쾌한 봉사를 목표로 이사회 이름 아래 모인 대학생 동아리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11개 대학교 총 20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D-7 ‘온세상에 퍼져라 나눔·봉사 물결’

자원봉사대축제 20일까지 접수 21일부터 11일간 100만명 행사

대한민국 최대의 나눔봉사 행사인 전국자원봉사대축제가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열립니다. 개인·가족·단체·기업·학교 등 단위로 전국에서 매년 100만 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실천 한마당 행사로 올해 18회째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의 ‘2001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지정 10년을 맞아 ‘온 세상에 퍼져라 나눔과 봉사의 물결’ 구호로 연말까지 자원봉사 물결운동이 펼쳐집니다. 이번의 대축제는 그 물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입니다. 대축제 기간 중에는 자원봉사 특별포럼,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특별행사 등도 함께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행사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JMnet)와 함께합니다.

자원봉사 한마당 신청서 제출: 4월 20일(수)까지
 봉사 실천 기간: 4월 21일(목) ~ 5월 1일(일)
 봉사 장소: 참가자가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장소
 참여 및 시상: 개인·가족·단체·기업·학교 등 단위로 봉사 프로그램(2시간 이상)을 만들어 신청. 실천 후 보고서를 내면 심사 후 시상(총 29개 팀).
 신청: 홈페이지(ngo.joins.com)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ngo21@joongang.co.kr)이나 팩스(02-751-9688)로 신청
 보고서 마감: 5월 27일(금)까지 해당 사·군·구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문의: 02-751-9454, 9457(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주최: 중앙일보-한국자원봉사협의회
 후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협찬: SAMSUNG 삼성

프랑스 프리미엄 아웃도어 아이더 | 고객센터 1644-7781 | 대리점 개설문의: 수도권 02-3408-9925 | 지방 02-3408-9985 | www.elder.co.kr

DM5121Z OCEAN BLUE SIZE: 255-265mm PRICE: 130,000

DM5121Z PINK SIZE: 230-250mm PRICE: 130,000

DM5121Z BLACK SIZE: 255-265mm PRICE: 130,000

김정수 기자 newslady@joongang.co.kr

중앙일보 행복동행 액션은 통해 모두가 사랑과 기쁨, 행복, 나눔을 함께 할 때 동행사,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김정수

경량 특수 소재 중창 안정형 접지력과 편안한 착화감 스타일까지 더한 멀티플레이 등산화 나는 아이더 스타일이다

2011년 SS 신상품 COLLECTION
 *10만원 이상 구매고객께 로고티셔츠 증정 (소진시 제외)
 *다량구매 특별 혜택

EIDER

40판 제14378호